

잠픽 - 잠시 쉬어감

편집: 다희, 지환



*잠픽: 잠깐

목차

중간평가

CDP

YDP

아띠데이

쉬어가기

뿌위

영어

무비

뿌씨렛

회의

쿠키

뿌팻

쉐어링

우리들의 이야기

홈 가드닝

수공예

환경

오늘 뭐먹지?

환경의 날 행사

츠네악 츠네악 꺄뿌찌어

350PPM

크니어 크니어

뿌어막

에세이

*뿌: 아저씨

*크니어: 함께

*뿌어막: 친구

*츠네악: 이겨라



중간평가

중간평가

캄보디아 오기 전에 '함께하는 것'과 '각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팀은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랬기에 3개월 동안 모든 것들을 하나처럼 움직였다. 중간평가로 오신 간사님들이 우리는 개인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너무 '팀'이라는 것에 얽매었던 시간들 동안 생긴 팀 내적인 갈등과 지쳐있던 마음을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중간평가 동안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쿨링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각자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지금까지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다. 쿨링 타임을 가진 후 진작에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팀 내적인 마찰이 조금은 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맞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뿌 위’농부님

‘뿌 위’ 농부님과 함께 농부님 밭을 갈았다. 농부님은 서툰 우리에게 차근차근 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너무 힘들면 쉬면서 하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를 잘 대해 주셨다. 오랜만에 한 CDP활동이어서 걱정이 조금 되었지만, 생각보다 힘든 것은 적고, 마을 분들과 아이들과 놀며 보낸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다. 맨날 맨날 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품: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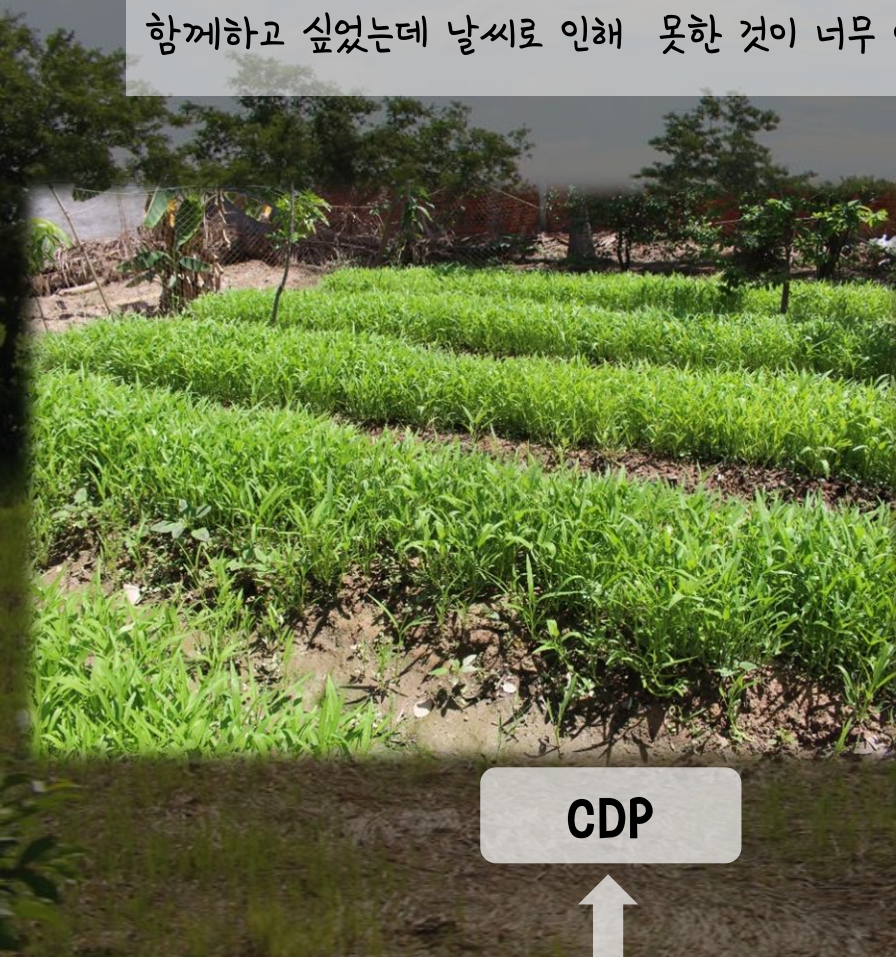


CDP



‘뿌 씨렛’농부님

우리가 농기구를 들고 한 첫 CDP활동지인 ‘뿌 씨렛’ 농부님의 밭을 가보았다. 밭에는 드럭꾼(모닝글로리)이 너무나 크게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분명 밭을 갈기만 했는데 짧은 시간에 크게 자란 드럭꾼을 보니 신기하기도하고, 놀랍기도 했다. 더 많이 함께하고 싶었는데 날씨로 인해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CDP
↑



‘뽕 팻’농부님

또 또 또 회의를 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회의였다. 전체 예산을 각 농부님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이 있었다. 분명 필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후원자로만 비춰지는 느낌이 강해 불편한 자리였다. 까리따스 직원인 ‘병 꼬다이’가 우리에게 이 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우리를 좀 더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라온아띠의 예산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우리를 편하게 대하시는게 어려우신 건 아닐까 염려됐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 농부님과 우리의 관계가 후원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병: 형, 누나, 언니, 오빠



CDP



플 마을



‘홈 가드닝’

까리따스 센터 안에 있는 작은 밭을 가꾸는 활동을 하였다.
밭에 먹을 채소를 심기 위해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했다. 도구를 이용하여 풀을 제거 하기도하고, 손으로 풀을 뽑기도 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있으면 뒤에서 유스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다. 이렇게 또 우린 함께 했다.
원래 한 주 동안 했어야 했는데 비로 인해 하루 밖에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CDP



유스들과의 회의

중간평가 이후로 유스와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 회의를 했다.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고, 유스들은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유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유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들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때문에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어 수업이 없어졌고, 쉬어링 시간과 수공예 시간이 만들어졌다.

YDP



찜리응 잉글레(영어 노래)시간 'Pop-music'

발음과 읽는 연습,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을 집고 넘어가면서 간간이 문법들을 알려주고 나는 코마에어(캄보디아어)를 물어보며 함께 노래한다.

이제는 안 오는 유스들도 보이고 꼭 와주는 유스들은 항상 함께다.

이전에 했던 'Baby'와 'Pretty boy'를 평소 때도 다운 받아 노래를 듣고 즐겨 부르는 유스들, 다소 전달하기 어려운 표현도 있었고 영어 발음과 노래 템포를 빨라해서 지루한 모습도 보였던 유스들 이라 잘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 노래를 즐겨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뻐다.

이제 이 노래들을 들을 때면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피어 오르겠지?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번 달엔 'take a bow'를 중점적으로 했다. 우리 나라에선 꽤나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유스들은 이 노래를 몰랐고 어려워 했다. 나름으로 쉬운 노래를 찾는다고 머리를 싸매고 회의와 검토 끝에 찾아낸 노래인데... 캄보디아인들이 좋아하는 팝송을 간과했다는 사실이 머리를 탁 쳤다. 이전에 유스들에게 물어봤지만 의견 없이 우리를 말갈게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곡을 추천해주었다. 이제서야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나 싶어 뿌듯하면서도 소통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씩씩해졌다. 1달 남았는데 이제 좀 서로 때가 묻었나 보다. 100%의 소통을 기대하기 보다는 서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헤아리며 채워나가는 시간이다.

YDP

RaomAtti^{15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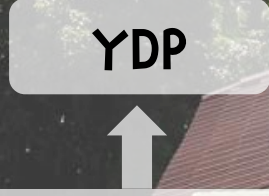


쉐어링(다희):꿈

우리가 게으른 탓에, 또 환경적인 탓에 한국어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중간평가 이후 한국어 시간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한국어 시간이 없어짐으로 생긴 '쉐어링'시간. 첫 시간은 간단하게 자신의 꿈에 대해 나누기로 했다. 우리가 흔히 '꿈'에 대해 생각할 때 직업이나,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직업'이 아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면지를 나눠주고 그곳에 그림이나 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멋진 선생님 되는 것'으로 예시로 들어주었다.

직업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그리라고 하니 대부분의 유스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좋은 집에 대한 바람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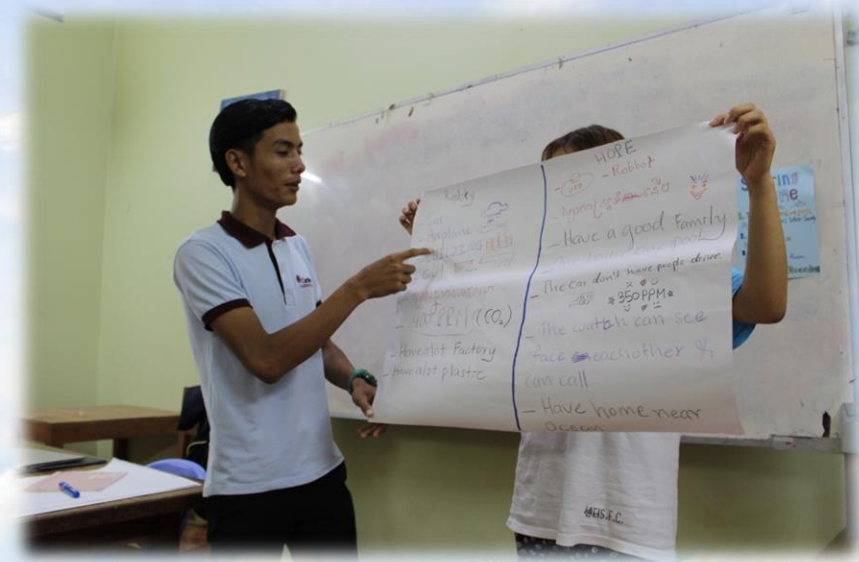
YDP



쉐어링(지환) : 20년 후 캄보디아의 모습

파주 국내훈련에서 했던 미래의 우리 사회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종이를 반으로 나눠 한 쪽에는 현실적으로 '될 것 같은 미래', 다른 한 쪽에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와는 많이 다른 캄보디아에 사는 친구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지 궁금했는데, 비현실적인 과학의 발전, 행복한 미래 등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우리와 비슷한 또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다.



YDP



HANDI CRAFT

When? 28.06.2016

Where? Same

What we will make?
"Book Mark"



YDP



수공예(다회):책갈피

첫 수공예는 책갈피 만들기. 책갈피의 용도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캄보디아는 책갈피가 없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책갈피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우리가 자른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코팅지를 샀지만 손 코팅지가 아니라 그 당일날 완성을 못하고 다음날에 코팅 기계로 코팅을 한 후에 예쁜 리본을 달아, 만든 유스들을 찾아 완성된 책갈피를 주었다. 우리만의 책갈피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다.





무비(주토피아)

저번 '정글북'에 이어 이번에는 '주토피아'를 보았다.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이 나올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 유스들이 너무 재미있었다.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면 소리지르면서 그 긴장감을 함께 느끼게 해주었다.

아쉬운 것은 코마에어 자막을 구하지 못해 영어 자막으로 보는데 영어자막과 영화가 맞지 않아 손으로 자막 조절하느라 고생을 했다. 노트북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자막을 옮기느라 힘들었다. 그리고 대사가 많아서 영어 자막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많은 유스들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졌다.

아띠데이

쿠킹(비빔밥)

이번 쿠킹인 비빔밥은 외국인이 거부감 없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한국음식이라 들어서 비빔밥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빔밥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소들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넣어서 조금 더 유스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요리를 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아 유스들이 덜 지루해했고, 다 같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요리를 할 때 너무 여자 유스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먹을 때는 다 함께 먹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처음엔 약고추장이 매워 보여서 먹기를 꺼려하다가 먹어보고 나서는 입맛에 잘 맞는지 너무나 잘 먹었다.

하지만 아무리 다 같이 요리를 하고 싶어도 요리 도구와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모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게 너무 아쉽다.

아띠데이

싸몬(Samun)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는 그녀. 항상 웃으며 칭찬(맛있다)이라고 말한다.

쓰라이 레악(SreyLeak)
모든 요리를 잘하는 그녀. 쿠킹타임에는 그녀가 빠질 수 없다.

사오피아(Saophea)
유스들과의 소통 담당. 맛있게 먹기 위해 비비기.

니엑(Neak)
소고기 약고추장 담당 요리엔 소질이 있다.

아띠데이





아띠데이



환경의 날 행사

6월 8일 캄보디아 정부에서 주최하는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있는 따끄들에서 차 타고 한 시간 반 이상을 달려간 알 수 없는 곳에서 진행했다. 행사에는 깐달의 주지사 분이 오셔서 행사를 진행하셨다. 초반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가 끝나고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함으로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겁게 해주었다.

연설을 들은 후에 열심히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무는 어린아이들이 다 심고 어른들은 나무 심는 척 하는 매우 표면적인 행사여서 실망했다.



환경
↑



행사가 끝나고 행사에 참여했던 까리따스 직원, 유스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싹 모 안(닭고기)요리를 먹고 산에 올라갔다.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 산을 보는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그냥 언덕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는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모든 곳의 경치가 다 보여 좋았던 것 같다.



프놈펜

꿀잠자고 있는 티다(다희)

덤덤덤덤(어덤) 비사이 아빠

환경





350PPM 캠페인

지난번 유스들과 350PPM회의를 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작은 실천들을 약속하는 계획을 세웠다. 유스들이 잘 보이는 곳에 달자는 피드백이 있어 큰 종이에 약속들을 적으려 했지만, 비 와도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동(코코넛)에 글을 써서 달기로 했다. 스텝 '쌈반'의 도움을 받아 동 껍질을 '쁘레호시장'에서 싸게 구입한 후 손질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앙시장에 있는 깔끔한 동 껍질을 상상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직접 손질을 하게 되었다.

손질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껍질 바깥부분의 갈색 털을 모두 벗겨냈고, 안의 속은 깔끔하게 파내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 깨끗이 파냈다. 우리가 버거워 하고 있을 때, 유스들이 달려와 능숙한 솜씨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끼리 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만한 양이 였지만(우리가 못하는 것도 큼 ㅋㅋ) 유스들이 도와준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손질을 마칠 수 있었다.



환경





그리고 6월 14일 우리는 유스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까리따스 직원 '병 탄'이 통역을 도와주었다.

우선 350PPM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유스들에게 알려주고,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생각하도록 설명해주었다. 캄보디아에서는 비닐 봉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 후 자신이 일상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동(코코넛)에 적고 돌아가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유스들이 너무 다른 곳으로(특히 남자들이 축구하러) 많이 빠져나가려고 해서 힘들었다. 마치 수원 아스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환경
↑



각자의 다짐을 모두 발표한 뒤, 방금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잊지 말고 동(코코넛)을 보여 계속해서 기억하자는 의미로 가리따스 씬터 나무들에 자신의 동을 달았다. 산만한 남자유스들은 자기 동을 내팽개치고 축구 하러 가버리는 바람에 여자 유스들과 우리가 거의 2개씩 달았다.

그래도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들 끼리 350PPM에 대해 얘기하고, 동으로 '350'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뭔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그리고 캠페인의 마무리로 우리는 유스들이 다짐을 발표하는 것을 찍어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유스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며, 이 때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환경
↑

썸낭(Samnang)
간달 까리따스에서 아주
가끔 볼 수 있는 직원

썸반(Somban)
까리따스 회계 담당
현재 까리따스 막내

쏭치웃(Sokcheat)
현재 직업학교
미술 선생님

올 때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웃음을 선
사하시는 할아버지

맨날 가면 계란을
시키는 다라(지환)

쓰라이닉(Sokcheat)
작년까지 유스였지만
현재 까리따스 직원

여기만 가면 밥
두 그릇 먹는 티다(다희)

점심패밀리

우리들의
이야기



이름: 야채볶음
재료: 베이비콘, ???(애호박과 오이의 사이)



이름: 등갈비찜
재료: 감자, 당근, 베이비콘



오늘 뭐먹지? 2탄
캄보디아식 음식편

이름: 미차(라면볶음)
재료: 캄보디아식 라면



이름: 옥수수죽
재료: 옥수수(쁘렉호시장)



우리들의
이야기



이름: 넘빠으
우리나라의 찜빵과 같은 것
고기 속이 누린내 진동



이름: نوم빵싸알
바게트에 햄, 생선살, 어묵,
캄보디아 장아찌, 칠리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음



이름: 짜크와이
튀긴 빵 위에 깨를 뿌려
고소함이 일품

이름: 머쭈우 르
여러 가지 과일을 절여서 칠
리에 찍어 먹는 것
달콤함과 매움의 환상의 조화



이름: 리하으
작은 조개를 소금이나 칠리
로 비벼 놓은 것
껍데기에 있는 칠리가 짭맛

우리들의
이야기



츠네악 츠네악 감뿌찌어

6월 7일, 캄보디아와 대만의 아시안컵 예선 경기가 있었다. 3월 첫 주 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썩치을'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보러 갔다. 국대의 실력과는 달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축구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그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앉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가 열심히 응원했다. 캄보디아가 2:0으로 승리해서 분위기가 좋았다.

인상적인 것은 경기 시작 전에 튜 노래 중에 GD&태양의 "GOOD BOY"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함께 춤을 췄다. 또 티켓을 사지 않고 갑자기 담을 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경찰들도 그 사람들을 잡는 척만하고 그냥 봐주는 모습이 신기했다. 담을 잘 못 넘는 사람을 밀어주기까지 했다.



우리들의
이야기





몰래 온 반가운 얼굴

인수인계 때 한번 본 13기 '국승일' 단원이 갑자기 까리따스를 찾아왔다. 처음에 보자마자 내 눈을 의심했다. 한국에서 보던 분이 갑자기 내 눈앞에 보여서 너무나 놀랍고, 반가웠다. 오랜만에 맘 놓고 수다 떠는 시간이었다. 동남아 여행을 하시다가 모토를 렌트해서 캄보디아를 여행한다고 하셨다. 일정이 끝나고 같이 미차와 뿌로 핫을 먹고 13기는 어땠는지 얘기도 듣고 할머니의 13기 15기 비교 하시는 말씀도 들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달 동안 동남아 여행하신다 들었는데 무사히 재미있는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어 코너어

까리따스에는 직업훈련학교에는 미술 반이 있다. 미술반 유스들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 리다(다희)가 칠칠맞게 라온아띠 티 중 가장 비싸다는 노란 티셔츠에 아크릴 물감을 흘렸다. 참고로 아크릴 물감은 옷에 묻으면 절대 안 지워진다.

그러한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해 미술반 '초'에게 그림을 부탁했다. 솔직히 말하면 붓을 댈수록 더 못 입게 만들어질거라 예상했었는데... 더 예뻐졌다. 다른 티에도 아크릴을 흘려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회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사오피아(주혜)는 '초'에게 초상화 그림을 선물 받았다. 초상화 속 나는 낯설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 뚜렷하고 진지한 '초'의 눈빛은 누구보다 멋졌다.

RaonAtti 15th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어 코너어

비싸이와 김흥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다. 이 두 아이는 우리가 거의 매일 보러 가는 아이들이다.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이 두 아이는 과자가 아닌 우리가 목적인 아이들이라 우리가 특별히 좋아한다.

우리가 마침 무비타임에 보여줄 '주토피아'를 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걸 보더니 무슨 뽀로로 보는 사촌동생마냥 너무 재미있게 봤다. 이해도 못하면서, 그게 너무 귀여워서 다리가 저리도록 안고 있다가 저녁 먹을 때 짬 할머니가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들의
이야기



피자컴퍼니

따끄마르(우리가 사는 곳에서 툭툭라고 5분거리인 시내)에 있는 피자컴퍼니에서 1+1프로모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싸이가 피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싸이 가족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병 어댐의 가족+김홍과 함께 피자 컴퍼니에 갔다.

우리 입맛에는 솔직히 맛없는데 캄보디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렌차이즈이고, 이벤트 까지 하니 사람이 정말 많았다.

비싸이는 옆 럭키마트에서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피자를 별로 안 먹어서 아쉬웠지만 김홍은 자기 위의 2배 정도 되는 양을 먹은 것 같아 뿌듯했다. 집에 포장해간 피자를 다음 아침에 비싸이가 맛있게 먹었다고 들어서 좋았다.

그리고 유비를 돌보느라 피자를 거의 못드신 어댐&레아 부부를 보며 부모님께 효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들의
이야기





뿌어막(주혜) “나리”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예쁜 나리,
 집이 깜퐁참(차로 2시간 이상)이라 까리타스 직업학교 기숙사에 산다.
 다른 사람은 다 Saophea라고 부르는데 나리는 항상 “sister” 이렇게 부른다.
 처음 캄보디아에 오고 나서 부러 거의 내 옆자리인 그녀, 항상 나를 챙겨주려고
 한다. 나의 짧은 캄보디아어와 나리가 어려워 하는 영어가 만나 우리는 하고 싶
 은 말들을 완벽히 못할 때가 많지만 웃음에서 웃음으로 많은 대화를 한다.
 영어가 어렵다면서 나랑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마음이 착한 친구다.
 아띠 타임에 참여하려고 찾아오는 나리가 좋다. 내 옆자리에 앉아 쏙쏙 들어가는
 보조개 웃음도, 시스터하며 나를 먼저 불러주는 이 아이의 목소리도, 자신이 잘 모르
 는 일도 나를 먼저 챙겨주려는 나리의 예쁜 마음씨도 참 좋다.

우리들의
 이야기





뿌어막(지환) “쓰라이 마오”

이름의 뜻이 개미랑 오다(come) 두가지인 친구이다. 18살로 생각보다 어림. 8살 같은 순수함을 가진 친구이다. 내가 짓궂은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는 착함을 가짐. 수업 끝나고 갑자기 들이닥쳐 뿌레호 시장을 데려다 달라했을 때도 웃으면서 데려다 준 착한 친구. 근데 운전이 너무 못해서 뒤에 탄 사람이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다. 요즘은 중국어 학원을 다니느라 바빠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아쉽다.

우리들의
이야기





뿌어막(다희): 반라우(Bimlav)

나이가 정말 많은 친구. 처음 들은 나이는 17살, 그리고 우리가 까리따스를 통해 안 나이는 22살,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21살. 실제나이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만나면 먼저 “쑤어 쓰다이”라며 먼저 인사를 해주는 친구. 조용하지만,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있으면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 나와 많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 친구가 참 좋다.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웃으며 살짝 내 볼을 만져주는데 그것도 좋다. 더 더욱 친해지고 싶은데, 친구도 수업이 있고, 일정이 있어서 함께 무언가를 할 기회가 적어서 아쉽다.

우리들의
이야기

뿌어막(제민) “아난팁”

무슨 이집트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를 보고 ‘코마에 썬룩(캄보디아 돼지)’라고 부르고, 나는 아난팁을 ‘띠어(오리)’라고 부른다.

실제로 오리처럼 시끄럽게 말이 많은 친구다. 쓰라이 레악이랑 맨날 붙어다니는 친구인데, 쓰라이 레악은 여성적인 반면에 얘는 남자애 같다.

까리따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가이드, 통역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라서 언어 배우는 것에 열심이고 재미있어한다. 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 단어를 조금 알고 있고 장난으로 ‘못생겼다’ 를 자주 쓴다. 아띠타임에 잘 참여해 주어서 고맙기도 한 친구다.



우리들의
이야기



이번 달 에세이를 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시간들과는 달리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았다. 중간 평가 이후에 밀린 숙제를 하는 것 처럼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것들을 했던 것 같다. 좀 더 활동에 집중했었던 한 달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친 여유 속에서 살았다. 오랜만에 만난 바쁨은 나 뿐만 아니라 우리팀 전체를 좀 더 신나게, 재밌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 달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달 중 가장 좋게 느껴진다.

아마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낀 한 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겠다.

-지환(Dara)

우리들의
이야기



“Saophea~” “자(네/응-모든 대답)”

주혜가 아닌 사오피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지 4개월째,
 크마에어(캄보디아어)를 익히려 노력하던 입에선 이제 누군가 영어로 물어도
 캄보디아로 대답하고 있다.^^ 반자동처럼 입에서 “자”하고 대답한다.
 4개월째인 이제서야 돌아가서 후회 없고 싶어서 그리고 글 모르는 답답함에
 글자를 익혀 나가고 있다. 어렵다고 할 수 없다는 주위 말에 겁먹어 늦은 시작
 이지만 배우기 시작하니 좀 더 일찍 배우길 후회가 된다. 쫘 어려운 건 사실이
 라 가기 전에 글을 보고 읽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 더듬더듬 어름어름 서툰어도 배워나가고 있다.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맘 상하는 일들도 있지만, 순간순간 예쁜 마음
 들이 나를 지친 생활 속 구원의 손길로 다가온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함께
 해주는 유스들이, 아이들이 있어 참 고맙다.

우리들의
 이야기



예쁜 마음처럼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다. 산도 높은 건물도 많이 없어 푸른 하늘은 더 광활하게 자신의 푸름을 뽐낸다. 구름은 온갖 모양을 자랑하고 하얗게 피어 내 맘을 동실동실 싣고 특별한 곳으로 데려간다. 집 앞의 꽃들은 다채로운 색깔과 매력적인 향기로 나의 눈과 코를 사로 잡는다. 카카오톡의 울림과 페이스 북의 알림으로 폰을 손에 쥐고 살 던 나는 하늘도 한 번 쳐다보고 꽃 냄새도 맡으며 하루를 감사하게 되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들으며, 일기를 쓰고 주위를 둘러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라온아띠가 아니라면 배우지 못 할 것들로 하루들을 채워나가면서 이 생활이 끝나도 한국에서 삶은 같을 수 있을까,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 생활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지금 이곳, 내가 오고 싶어하던 자원활동 아시아 현장이란 사실에 지금을 좀 더 즐기자 생각으로 앞서 간 생각을 떨는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경쓰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였다. 근데 지금 내가 어떤지, 나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피드백 받았다. 그래, 나에게 더 물어봐야 겠다. 난 지금 어떡냐고.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고 있다. 나의 최선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면서 내 최선을 내려놓는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순간순간이 최대의 노력이었는지 짚어보지만 잘 모르겠다. 이 후에 돌아가서 서서히 알게 되리란 기대로 순간의 모자람들을 접어두려 한다.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라온아띠로서 생활하다가 웃으며 돌아가고 싶다.

- Saophed(주혜)

우리들의
이야기



내 생애 가장 긴 여름4

어느덧 4개월. 중간평가 이후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과연 4개월 동안 활동에 충실했는가? 게으러서 활동을 열심히 안 하지는 않았나,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을 미루진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들에 마음이 버거웠다. 지나고 난 지금 생각해보니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활동에는 많은 집중을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온아띠 지원할 때 기대했던 것은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만나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 내 앞으로의 교사가 되었을 때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 유스들은 나이가 많았고, 그랬기에 더 자신 없었던 것 같다. 모르겠다.... 돌아보면 핑계다. 내가 게으러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후회하지 않고 다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온아띠'라는 의미가 '좋은 친구들'인데 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활동을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냐는 질문에 더 반성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더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다가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속상하다.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6월이다. 정말 힘들고, 힘들었다. 잘지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건 모두 참고, 배려했던 4개월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두 배려가 아닌 나만의 방식이었던것 같다. 나는 참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더 잘 지낼 수 있을 꺼라 생각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나도 말 안 하고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너무 생각하다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참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다.

이제 한달 남은 지금, 이제 좀 내 감정에 더 솔직해 지자. 표현하고 싶은 때는 하며... 후회하지 않게...

-Tida(다희)

우리들의
이야기

이 곳 캄보디아에 와서 4개월을 넘게 지내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크마에어 말이 있다. 4개월동안 짬뽕(잠시만요)과 함께 가장 많이 썼고, 지금도 정말 자주 하는 말 '어꾼(감사합니다)'. 이 곳 사람들이 인사처럼 흔하게 건네는 말 '썩 썩바이(행복하다)가 바로 그것들이다. 라온아띠를 하겠다고 지원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면접을 볼 때도 무슨 일이든 시켜주면 열심히 도울 수 있다고 했었다. 국내훈련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도와준다는 생각이 한편에는 남아 있었나 보다. 나는 캄보디아보다 발전된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온 학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특기도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다가와 주었고, 나는 도와주기 위해 왔다는 오만했던 생각은 버리고 오히려 감사함을 받으며 지냈다.

이 나라에서는 행복하냐? 라는 말을 인사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선했다. 아침에 까리따스에 출근하자마자 병 꼬다이가 '썩 썩바이?(행복하니?)'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이니까 피곤한 기운에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었는데, 병 꼬다이가 왜 행복하지 않냐고, 캄보디아는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곳 사람들은 내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불편한 나라에 살면서도 항상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었다. 작은 것에서도 행복함을 느끼고, 작은 불편에는 투정조차 하지 않고 넘기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4개월 동안 생각만큼 많은 것을 하지도 못했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말처럼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늘었고, 일상적인 인사인 썩 썩바이처럼 행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 사람들에게서 배웠다. -제민(Neak)

우리들의
이야기

6월호

RaomAtti^{15th}

츰, 한국에서 만나요 😊



*츰 : 끝